

포스트 코로나 사회 속에서 교회 평가 척도 개발을 위한 사회과학적 제언*

Social Science Suggestions for Developing a Church Measuring Scale In the post-COVID 19 society

배 성 훈 (Sunghun Ba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ocial sciences for the development of measures to measure the Korean church. The Korean church is being criticized even more amid the pandemic situation caused by COVID 19, but this is not due to COVID 19, but the trust of the Korean church has been declining since before. Among the social sciences, we focus on the church as a place where theology and sociology meet through the sociological imagination. The church is the body of Jesus Christ and is not only a theological confession as a community of faith, but also a natural community, a social institution, a voluntary association, and a social relationship. Therefore, the church can be measured just like other areas of society, and social science concepts and operational definitions can be used to develop a measure for measuring the church.

Based on the above, three practical suggestions were made for measuring the church. First, various studies on the criteria for measuring the church are needed. Second, more Christians are studying social science and theology together. Third, an institution that can database the statistical data related to the church is needed.

Key words: church, scale, social science, sociology

* 2021년 11월 11일 접수, 12월 10일 최종수정, 12월 10일 게재확정

** 연세대학교(Yonsei University) 일반대학원 사회복지정책협동과정 박사과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희관, st.hun@yonsei.ac.kr

1. 들어가는 글: 코로나19와 한국교회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 한국교회를 향한 내외부의 시선은 차갑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에서 준비한 2021년 4월의 토론회 첫 주제가 “상식에 미치지 못하는 신앙, 재난에 대처하지 못하는 교회”인 것은 코로나19로부터 개인과 사회를 지키려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을 한국교회가 잘 지키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염의 온상이 되었고,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하여 국가의 분열을 조장하였음을 반성하고 있다.

장신대와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하여 비개신교인 500명에게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한국기독교공보, 2021. 5. 3.), 코로나 이후 개인교인에 부정적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비개신교인의 응답이 85%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중 82.4%는 개신교가 코로나19의 확산에 책임이 있다고 응답하여 비개신교인이 가지는 교회와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가 코로나19를 거치며 더욱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부정적 상황이 지속되면서 기독교는 사회와 늘 대립하는 존재처럼 느껴진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우리가 사는 사회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아니 기독교는 사회 안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를 초월하는 것인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실제적이고, 분명하게 ‘기독교’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에 대한 정의가 확실히 내려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줄고에서는 ‘기독교(christianity)’란 무엇인가?, ‘사회(society)’는 무엇인가?와 같은 조작적이고, 거시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결과물로서의 ‘기독교’, ‘사회’를 이야기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보다는 ‘신학’, ‘사회’ 보다는 사회 과학(social science)의 한 분야인 ‘사회학(sociology)’의 영역에서 바라보는 ‘사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사실 ‘기독교 신학은 사회학과 어떤 관계에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치환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한국사회의 부정적 인식에 대해 많은 기독교 신자들의 경우 기독교는 사회를 초월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인식이 변화할 가능성은 없는가? 우리는 사회 안에서 생활하고, 교회에 다니고, 친교를 한다. 결코 사회를 벗어나서는 이와 같은 행위들을 연속적이고, 의미 있게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완전히 사회에 포함된 하나의 종교(a religion)일뿐인가?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에 의하면(Giddens & Sutton, 2009), 모든 종교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특성들은 다음과 같다. 종교들은 존경심이나 외경심을 불러일으키는 상징을 가지고 있고, 신도들의 공동체가 실행하는 교회 예배와 같은 의식(ritual) 혹은 행사들과 연관되어 있다.

우리나라 종교 인구에 관한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통계청, 2016), 2015년 11월1일 현재 한국의

종교 인구는 2,155만 명(43.9%)으로 2005년(2,453만 명, 52.9%)에 비해 무려 9.0%가 감소했다.¹ 종교별로는 총인구 중 기독교인구가 19.7%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불교(15.5%), 천주교(7.9%) 순으로 집계되었다. 개신교는 지난 2005년 조사에 비해서는 1.5%가 증가하였다.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성장하고 있는 것인가?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한국교회를 향한 지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II. 신학과 사회과학의 만남: 사회학을 중심으로

왜 우리는 사회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가? 왜 우리가 타 종교에 비해 열성적으로 종교활동을 함에도 비개신교인들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는 점점 추락하는 것일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왜 한국 교회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인식이 확산되었는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인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사회를 섬기지 않아서? 아니다! 실제로 우리는 다른 어떤 종교들보다 사회봉사를 많이 한다.

법보신문(2021. 4. 5)에 따르면, 각 종교계가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전체 529곳 가운데 개신교가 259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에 있어서는 49.0%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불교가 152곳으로 28.7%, 가톨릭은 97곳(18.3%), 원불교 14곳(2.6%), 기타 7곳(1.4%)의 순이었다.

그렇다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옹호할 강력한 개신교 신자 정치 지도자를 가지지 못해서? 아니다! 우리는 광복 이후 지금까지 3명의 장로 대통령을 가질 수 있었다. 자본주의적인 ‘선(善)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자본이 다른 종교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8년 종교단체 연간 운영자금 현황에 따르면 개신교의 연간 운영자금은 3조1760억 원으로 천주교(3390억 원) 불교(4610억 원)에 비해 7~9배나 많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그러면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이 개신교의 교인들의 감소를 야기하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인식이 확산되게 되었는가? 그리고 한국 교회와 사회가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질문에 답하기 위해 기독교 신학(특히 교회론을 중심으로)과 사회학의 만남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왜 사회학을 통해 교회를 바라보아야 하는가?’와 같이 당연히 제기되는 문제들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1)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 단위의 전국 조사로 2020년 조사 결과는 요약된 결과만 보고되고 있으며, 종교인구와 관련해서는 가장 최근 데이터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임.

“독일 개신교 신학계에서는 1960년대 후반 이후 행동과학(Handlungswissenschaft)의 관점에서 신학의 실천, 즉 Praxis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면서 근접 학문의 신학으로의 차용이 일어나게 된다. 그것은 실천신학이 단지 다른 신학분야, 특히 조직신학의 “응용과학”으로서 자리매김 되어지는 것에 대한 반성과 비평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자신의 현장(Praxis)에 대해 이론화 하고 이론의 실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려 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학문의 대상으로서의 현장에 대한 자기 비평은 제도화된 종교적 실체로서의 교회의 틀을 넘어 사회 안에서 나타나는 종교적 실체로서의 기독교와 그 현장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아 그 범위를 넓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발전 과정에서 신학은 자연스럽게 사회학이라는 학문의 틀을 차용하게 되었고 그 방법론을 통하여 신학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 이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종교적 현상, 즉 종교의 사회적 형태, 종교의 대화의 틀, 경험의 종교적 모습들에 대한 주체적 수용형태 등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조성돈, 2004; 21).

오늘날과 같은 ‘사실의 시대’(Age of Fact)에는 정보 자체가 사람들의 관심을 지배하여, 그것을 소화할 능력을 압도해버리는 경우가 흔하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목회자를 포함하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자신들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선명하게 요약할 수 있도록 정보를 이용하고 이성을 발전시킬 수 있게 해주는 정신적 자질 바로 그것이다. 저널리스트와 학자, 예술가와 대중, 과학자와 편집인들이 이른바 사회학적 상상력(Mills, 2000)이라고 하는 것에 기대하는 점이 바로 이러한 자질이다. 이제 사회학적 상상력을 통해 신학을 만나보자.

III. 신학과 사회학의 만남의 장, 교회

1. 사회학이 바라본 교회

신학과 사회학의 대화를 위해서 ‘교회’라는 접점을 택한다면, 필연적으로 그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한다. 그러나 기독교의 2000년 역사의 때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 ‘교회’에 대해 명료하고 분명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필자의 신학적 지식의 부족함으로 본 논문에서는 한스 쾰의 『교회』 한 부분을 인용하는 것으로 ‘교회’에 대한 정의를 대신하고자 한다.

“교회라는 개념은 주로 교회가 처한 그때마다의 역사적 형태에 의해 규정되어 왔다. 교회는 자신이 특정한 시대에 만들어 놓은 상(像)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 매 시대는 자기만의 교회상을 가지고 있다. 이러

한 교회상은 특정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생겨나 특정한 역사적 교회에 의해 실현 및 형성되고 특정한 역사적 신학자들에 의해 개념화 된다. 그러나 정신사, 교회사, 신학사적인 조류와 반류(反流)에도 불구하고 항상 변하는 역사적 교회상들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요소와 전망은 교회 그 자체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속적인 근원에서 나온 '본질'(本質, Wesen)이다."(한스 쿡, 2007: 5).

우리는 모두 가족, 교회, 국가, 학교, 기업조직, 노동조합, 클럽 및 정당과 같은 사회구조들을 알고 있다. 사회학 이론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사회구조들을 개념화하고 분류하고 조작적으로 정의하기를 원한다. 우선 '개념'(concept)이라는 것은 '관찰된 현상이나 그 특성을 표현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용어로 표현한 것'이다(민경배, 1999; 26). 또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는 사회 과학을 연구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사전적 의미로서의 조작적 정의란 '추상적인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조작하여 개념 본래의 의미를 살리면서도 측정할 수 있는 변수로 객관화시킨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민경배, 1999; 27쪽). 근 의 사회과학분야에서는 조작적 정의를 발전시킨 '조작주의'(Operationalism)에 대해서 학문적인 논의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Marshall의 연구에 의하면 (Marshall, 1992; 70), 조작주의는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 정도로 분류된다. ① 조작주의의 본래적 형태의 모습을 띤 것으로 오로지 조작주의적 용어들만이 과학적 분석의 요구에 부응한다고 생각하는 입장. ② 이론적 용어와 경험적 용어를 양분하여 전자는 개념의 조직적인 정합성과 상관성을 확립하기 위해, 후자는 질량에 관계되는 것으로 사용하는 입장. ③ 관찰 가능한 조작적 용어들이 이론적 개념들과 같은 어떤 것의 지시자로 나타난다고 보는 입장. ④ 조작적 용어들이 오로지 척도 혹은 수량적 지시자의 형태로 이해된다고 보는 입장. ⑤ 조작화 한다는 것을 다른 개념을 위한 척도나 수량적 지시자를 발견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이 그것이다.

교회에 대한 사회학의 입장은 무엇일까?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하나의 자연발생적인 공동체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다.

1) 자연적 공동체

가족, 친족, 결혼, 현대 사회의 확대가족은 자연적 공동체(natural community)이다. 교회 역시 이들과 같은 자연적 공동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연적 공동체는 사람들을 영속적으로 하나의 사회적 집합체의 구성원으로 연결시킨다. 구성원의 자격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출생함으로써 가족의 구성원이 되지만 어떤 가정에 속하는 것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혼인 관계의 한 당사자가 되는 것을 결정하지만,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일단 이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유대는 영속

적이다. 자연적 공동체를 구별하는 또 다른 특성은 그 관계가 생물학적 유대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편과 아내 간의 성적 유대, 가족 성원간의 혈연적 유대는 자연적 공동체가 존립하는 기초를 형성한다(MacLarkey, 1992).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 공동체에 속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교회는 자연적 공동체와는 두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자연적 공동체는 자발성을 가지더라도 속할 수 없는 공동체인 반면, 교회는 그렇지 않다. 둘째, 자연적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생물학적 유대에 근거하고 있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

교회는 가족과 같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공동체인가? 교회의 본질은 말씀의 사건이고 사랑의 사건이다. 이것을 최근에는 성령의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다. 교회는 성령에 의해 만들어지는 성령의 피조물이다. 교회의 본질은 성령의 사건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애를 나누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다(김명용, 1997; 22).

교회는 성서의 표현을 따르자면 영이 채워져 있고 영이 활동하고 있는 성전이요 건물이다. 요컨대 영의 집이다. 개별교회도 영의 집이요(고전 3:16-17), 전체 교회도 영의 집이다(엡 2:17-22). 교회의 모든 원천존재·존속이 영의 덕택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영의 피조물이다(이형기, 2005; 95). 피조물, 곧 창조된 것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교회는 자연 발생적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제도

사회제도(social institution)란 사회의 어떤 공유되는 관념과 목표의 가치와 과정을 구현하고 그 사회의 어떤 기본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조직화된 사회관계 체계(social relation system)라고 할 수 있다(이원규, 2006; 457). 사회제도로서의 교회를 살펴보기 전에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perspective)에 대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구조기능주의, 갈등이론, 교환이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민속방법론이 그것이다(우리사회연구회, 1993). 바른 연구를 위해서는 이 다섯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는 교회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구조)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소개정도로만 대신하려고 한다. 사회제도에 대한 다른 정의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사회적으로 확립되고 비교적 안정된 지위와 역할과 규범과 절차의 조직적 체계로서, 구성원 각각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의 기본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과정이다. 더 요약해서 말하면 사회 제도란 개인과 집단의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관습화되고 공식화된 방법과 절차를 뜻한다(민경배, 1999; 183).

각기 다른 사회학자의 개념 정의이지만,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그 제도(institution) 안에 가치가 있고, 그 제도를 통해서 욕구를 충족시키며, 하나의 조직화된 사회관계 체계라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위의 개념들은 한국의 현재 교회의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과연 사회제도일 수 있는가?

교회를 제도로서 바라보는 것은 교회를 제도와 일치시키는 가톨릭 교회론과 비슷하다. 교회를 바라보는 가톨릭의 전통은 오랫동안 가시적이고 제도적인 가톨릭교회를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규정했고 이것을 성육이론(成肉理論)의 교회론적 확장이라고 불렀다(김명용, 1997; 14).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사회의 제도 가운데 하나라면, 우리는 혼란스럽다. 머리인 그리스도도 사회의 일부인 것 아닌가? 혹은 사회제도-국가, 경제와 같은-는 교회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가? 이 두 가지 질문 모두에서 우리는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 사회제도와 그리스도는 상호 관계한다는 것이다.

3) 자발적 결사조직

사회집단의 유형을 맥키버(R. M. Maciver)는 공동체(community)와 결사체(association)로 구분하였다(Maciver, 2020). 공동체는 인간의 공동생활이 행하여지는 일정한 지역을 의미하며, 결사체는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조직이라고 말하고 있다. 맥키버가 공동체에서 중요한 요소로 꼽는 것은 지역성과 공동체의식이다. 공동체는 그 특징으로 일정한 지역을 바탕으로 그 안에서 공동체 의식과 문화를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게 가지게 된다.

공동체와 비교하여 결사조직은 특수한 목적이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조직된 집단이다. 때문에 이들을 기능집단 또는 이익집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성원들의 관심, 활동, 규모, 조직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형태로 기업체, 정당, 학교, 노동조합 등을 들 수 있다(우리사회연구회, 1993).

교회는 정당, 노동조합, 지역 단체와 같이 자발적으로 조직을 만든 증거들이 존재한다. 실제로 교회를 하나의 정치 정당이나 조합으로 보려던 시도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신앙의 정치적 차원을 고찰하며, 현대인의 가장 심각하고 예리한 당면 문제들을 의식하고 있다. 또한 현대세계에서의 교회의 기능이라는 원천적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있다(Gutierrez, 1988; 259).

‘자발적’이란 단어는 자연적 공동체나 사회제도와 비교하여 특별히 사용된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규범적인 사회구조, 즉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주어진 측면에 대한 그분의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구조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교회는 열성적인 결사조직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더 확실한 것은 교회는 자신의 이해 관계에 따라 조직되고, 해체되는 조직이 아니라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의 거룩하고, 영원한 공동체이다(MacLarkey, 1992).

4) 사회관계

더불어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관계를 사회학에서는 사회관계(social relation)라는 말로 표현한다. 사회관계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인간이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이다.

이 사회구조는 사람들간의 광범위한 일상적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상사원/고객, 의사/환자, 이웃/이웃, 친구/친구 관계는 이 사회형태 내에 포함된다. 조직구조나 권위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유로운 사회관계는 동등한 관계이다. 동등이란 상사원, 의사, 이웃, 친구가 상대방인 고객, 환자, 이웃, 친구에 대하여 어떠한 조직적 또는 규범적 권위를 갖고 있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숙련, 지식, 기술, 그리고 생활경험이란 의미에서 불평등이 있을 수 있고, 종종 존재한다. 그렇게 되면 자유로운 사회관계는 평등주의적 개념이 아니라 엄격히 구조화된 사회구조와 그렇지 않은 제도 간에 구별을 가능하게 하는 용어인 것이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관계들이 존재한다. 목사/평신도, 장로/목사, 평신도/평신도, 이 외에도 다양한 관계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동일한 신앙고백을 가지고,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의 관계가 된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의 피조물의 관계이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부활한 주님으로서 교회에 현존한다. 교회 없이 그리스도 없고 그리스도 없이 교회 없다. 교회에 대해 그리스도는 멀어져만 가는 과거의 일도, 멀거나 가까운 미지의 미래의 일도 아니다. 그는 만인의 주님으로서 알건 모르건 온 인류를 지탱하고 있으며, 교회 안에 현존하고 있다(한스 쾅, 2002; 109). 그분은 두세 사람이 그 이름으로 모인 곳에 거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거하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20)”

2. 교회의 시작: 조직과 인격

사회학에서 바라보는 교회와 교회에서 바라보는 교회에는 비슷한 점도 있고, 상이한 부분도 있다. 그럼 역사적으로 교회의 시작은 어떠했는가? 교회의 시작, 즉 교회의 역사에 대한 연구는 사회학과 신학이 서로를 향해 팽팽하게 가지고 있던 긴장감이 역사라는 또 다른 관계를 만남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

1) 교회 조직의 시작

교회의 시작은 작은 모임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수가 자기 주위에 불러 모았던 저 열두 명의 연합(Gemeinschaft)으로부터 하나의 공동체(Gemeinde)가 형성되었다. 예수 자신은 하나의 조직적인 예배단체라는 의미에서의 공동체를 창설한 적은 없지만-그는 다만 선생이었고, 제자들은 학생이었다-, 그러나 즉시로 학생들의 무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은 그 이후의 모든 시간들에 대하여 근본적인 것이 되었다(하르낙, 2007; 145).

이후 교회의 역사는 이단들과의 싸움으로 시작된다. 초대 가톨릭 교회가 설립되는 다각적인 과정은 그리스도교 영지주의와 마르시온주의 그리고 몬타누스주의를 극복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쾰머 외, 2008; 43). 성령이 교회를 위해 감동을 세울 때는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방어하고 교회를 양육하기 위함이었다. 교회의 직제는 교회가 참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제도적인 교회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 수 있다(김명용, 1997; 23). 교회의 조직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당연한 귀결이었다.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언제나 구체적으로 보이는 역사적 실체를 생각해야 한다. 슬라터(A. Schlatter)는 인간들이 교회인데 이 인간들의 모임은 가전적이라고 언급했다(Schlatter, 1984). 본회퍼(D. Bonhoeffer)는 교회의 가전성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불가전의 교회가 되려는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가 아니라고 말했다(Bonhoeffer, 2012).

2) 인격으로서의 교회

그러나 보다 우선적인 질문을 해보자. 예를 들면,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이 있었느냐?’와 같은 질문 말이다. 교회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이고, 그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 고백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시작은 인격적이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엡 1:22; 5:23)께서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이는 교회의 시작이 한 개인의 신앙고백으로 시작된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엡 1:23, 고전 12:12; 12:27) 것을 나타내는 표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

3) 그리스도인의 시작

교회의 인격적 시작을 ‘베드로의 고백’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어디에 근거를 둘 수 있을까?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행 11:26)”

그리스도인은 주를 믿는 믿음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의 믿음이 선행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이라고도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위의 사도행전 말씀에 비추어보았을 때에는 두 번째 문제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고백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불러줘야 하는 것이다.

사회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인의 시작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사회화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할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만들어지는 존재인 것이다. 이것은 출생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취득하게 되는 귀속적 지위(ascribed status)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성취지위(achieved status)인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지위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이지 ‘말’이 아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은 안디옥에서 그들이 살았던 1년간의 삶 때문이었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말로써 다른 이들을 전도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행 26:28)

IV. 척도의 일반적 특성

사회과학에서 어떤 사회 현상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려고 만든 도구를 척도(尺度, scale)라 한다(채구묵, 2015; 121). 측정을 한다는 것은 일정한 과학적 규칙에 따라 측정의 대상이 되는 현상에 수치를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자연에서 자(尺)를 이용해서 많은 것들을 재고 있다. 키, 몸무게, 넓이, 길이 등. 이때마다 우리는 단위를 사용하는데 이 단위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단위가 다르면 측정값이 제각각이라 동일한 비교와 대조는 불가능하다. 결국 무엇을 재는 자는 단위가 같아야 한다. 우리가 만들려는 척도는 측정된 값을 통해 사회적인 값을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연현상들에 대한 척도에 비하면, 사회현상에 대한 척도는 복잡한 논리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 사회, 사회현상과 관련된 것들, 예를 들면 신앙 태도, 믿음, 감정, 제도 자체를 엄격하게 측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즉, 어떤 대상에 대해 몇 센티미터(cm)나 몇 킬로그램(kg)으로 정확하게 나타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사회 조사방법들과 이론들을 통하여 현상을 비슷하게 측정할 수는 있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재는 척도를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사회과학의 척도

먼저 ‘척도’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자. 사회과학에 있어서 척도가 가지는 특성은 사회과학적인 지식이 가지는 특성과 많은 부분 동일하다. 사회과학에서 척도를 만드는 것은 친구나 부모님과 사적 대화 중에 갑자기 만들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또한 골방에서 기도를 통해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회과학에서 정의하는 척도가 가지는 일반적인 특징은 크게 세 가지인데 바로 재생가능성, 경험가능성, 객관성이다.

첫째, 재생가능성(Reproducibility), 재생가능성은 어떤 현상을 측정할 때 동일한 척도로 동일한 대상을 잰다면 미국에 있는 A가 재는 것과 한국에 있는 B가 재는 것은 같은 결과를 얻는다. 즉 반복적으로 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재생가능성은 자연과학과 같이 절대적으로 재생가능한 방법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방법적 엄밀성과 상대적으로 더 재생가능성을 추구하는데 있다.

둘째, 경험가능성(Empiricism), 경험가능성은 척도를 통해 측정하는 결과값, 혹은 지식이 우리의 지각과 감각을 통해 경험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앙은 특수한 경험이라 측정이 불가능할 수 있으나 사회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경험은 측정되고 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도 자연과학의 경험가능성과는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혁명과 같은 사회현상은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와 사회가 더 많기 때문에 이를 측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다.

셋째, 객관성(Objectivity), 여기서 말하는 객관성은 자연과학과 같은 절대적 객관성을 말하지는 않는다. 객관성을 추구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객관성을 통해 현재 측정한 값이라도 후대에 측정한 값에 의해 현재의 측정값이 허구로 밝혀질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이다. 객관성으로 인해 척도는 권위를 갖게 된다.

2) 척도의 공유와 자기반성

척도는 그 척도가 속한 사회의 구성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 교회를 재는 척

도를 만든다면, 앞서 이야기한 재생가능성, 경험가능성, 객관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사회의 구성원들과 공유할 수 있다. 또 사회 구성원들과의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교회를 재는 척도를 만들 때 교회가 속한 사회, 척도를 사용하는 공동체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 효용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척도를 공유한다는 것은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그 연구 결과를 공정하게 밝힐 수 있는 연구자의 용기가 필요하다.

종교는 그 특성상 자기반성의 구조적 불가능성으로 인해 신앙을 빌미로 하는 인간의 자기절대화라는 성향을 오히려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정재현, 2003; 21). 교회를 재는 척도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권력 지향적 속성을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척도여야 척도가 사용되는 안과 밖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을 거치며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교회와 사회의 관계를 교회론과 사회학의 만남이라는 방법론을 통해 고찰하고 교회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도출할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교회에서 생각할 때 교회는 누구보다 사회 봉사를 많이 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사회적인 영향력도 높다고 볼 수 있으나 사회의 평가는 냉정하다. 이런 사회의 냉정한 시선들에 대해 교회에서는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의 한국교회에 대한 불신은 비단 코로나19로 인해 야기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속적으로 쌓여왔던 한국교회에 대한 불신들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거치면서 더 폭발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SRC)는 전국대학 학생과 교수가 함께 ‘한국종합사회조사’라는 것을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하는 조사 가운데 개신교, 천주교, 불교를 비롯한 8개 종교에 대해 “다음 종교집단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라고 5점 척도(매우 긍정적, 약간 긍정적, 긍정도부정도 아님, 약간 부정적, 매우 부정적)로 묻는다. 놀랍게도 2018년까지의 조사 결과를 보면 연도가 지날수록 개신교에 대한 의견은 점차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김지범 외, 2019). 다만 이 자료에 대한 개신교계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이미 사회에서는 교회와 개신교에 대한 평가들을 사회과학적 지표들을 활용해 수치화 하고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된 상태이다.

반면 교회에서 스스로를 평가해 데이터화 한 것은 기윤실에서 2008, 2009, 2010, 2013, 2017,

2020년 실시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가 대표적이라고 할 것이다(기윤실, 2020). 이 데이터는 한국 교회의 자발적인 연합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윤실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팀을 꾸려 실시하고 있으나 전술한 것처럼 지난 5번의 조사의 간격이 제각각으로 일정한 기준이 없이 신뢰도 조사가 1년 단위 혹은 2-3년 단위로 실시되어 연속성을 가지기 어렵고, 설문지의 구조를 볼 때 주로 ‘신뢰’도와 ‘인식’이라는 응답자의 주관성에 기댄 내용이 주를 이룬다. 따라서 주변에서 한국 교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면, 교회 내부의 사람들의 시선 역시도 그렇게 될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에서 사회과학적인 분석으로 교회에 대한 데이터들을 축적하는 것에 비해 한국 교회 내부의 응답은 미약할 정도로 부족한 형편이다. 이에 본 연구의 결론에서는 한국교회를 위한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 교회를 재기 위해 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교회를 자로 잰다면, 그 자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예전에는 교회란 ABC에 따라 평가된다는 말이 있었다. 교회의 ABC란 Attendance(출석교인), Building(건물), Cash(헌금)를 나타낸다(Mcintosh, 2010). 즉 교회의 성도수나 건물 크기, 헌금액수로 교회를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 기준은 좋은 평가가 아니다. 교회는 성도수, 건물 크기, 헌금 액수로 평가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역사적, 신학적으로 논증하였듯이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평가를 위한 기준은 달라져야 한다. 이에 대한 교회론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교회를 사회적 기관의 하나로 보고 다양한 학문들이 교회에 대해 탐구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과학과 신학을 함께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져야 한다. 교회의 척도를 이용해 측정을 하려면 척도의 기준이 되는 항목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학자들이 사회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교회’에 대해 사회학적인 연구들을 많이 하였으나 이것은 사회학적인 접근이어서 신학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혼란이 따른다. 척도의 기준들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위해서는 신학적 사고로 훈련된 사람 가운데 사회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신학과 사회과학의 접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한다. 신학교들 가운데에도 필수과목 가운데 사회과학조사방법론에 대해 가르치는 학교는 전무하다. 사회과학을 공부한 이들 가운데 신학이 훈련된 경우도 거의 없다. 이 두 영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셋째, 교회와 관계된 통계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현재 사회과학계에서는 각 학교별로 데이터가 관리됨과 함께 사회과학 통계는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 사회복지와 관계된 자료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에서 통합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와 관련된 데이터는 통합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예전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한미준)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책까지 발간하였으나 그 자료를 관리하던 단체는 없어졌으며, 최근 목회데이터연구소라는 곳에서 주로 통합 교단의 수주를 받아 데이터들을 생산하고 있으나 이름과는 달리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 연구소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충신교회에서 설립한 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에서 ‘바른신학 균형목회 세미나’를 2007년부터 개최하여 한국교회에 대한 다양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발표하고 있으나 목회자 중심의 세미나여서 평신도들에게까지 자료들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지금부터라도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에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한국교회와 관계된 통계들을 모으고 데이터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교회와 사회에 대한 다양한 사회과학적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한국교회와 사회를 더욱 잘 알아갈 수 있고, 교회의 문제를 보다 객관화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 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Bonhoeffer, D. (2012). *The collected sermons of Dietrich Bonhoeffer* (Vol. 1). Fortress Press.
- Giddens, A., & Sutton, P. W. (2009). *Sociology*. Polity press.
- Gutierrez, G. (1988). *Liberation theology*. New York.
- Maciver, R. M., & Spitz, D. (2020). *Politics & Society*. Routledge.
- Marshall, P. (1979). *Some Recent Conceptions of Operationalism and Operationalizing*. *Philosophia Reformata*, 44(1), 46-68.
- Mills, C. W. (2000). *The sociological imagin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Schlatter, F. W. (1984). The Restoration Of Peace In Ignatius' Antioch. *The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465-469.
- 김명용. (1997). **열린 신학 바른 교회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 [Kim, M. Y. (1997). *Open Theology Upright Church*, Seoul: PUTS Press.]
- 김명용. (1997). **현대의 도전과 오늘의 조직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 [Kim, M. Y. (1997). *Challenge of Modern Society and Systematic Theology in Today*, Seoul: PUTS Press.]
- 김지범 외. (2019). **한국종합사회조사 KGSS 2003-2018**,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Kim, J. B. et al. (2019). *Korean General Society Survey KGSS 2003-2018*, Seoul: SungKyunKwan University Press.]
- 남예리 역. (2010). **교회가 다르면 목회가 다르다**, McIntosh, Gary L. (1999). *One Size Doesn't Fit All: Bringing Out the Best in Any Size Church*. 서울: 권서인.
- [Nam Y. R. (2010), *Different Church, Different Ministry*, Seoul: KwonSeoIn. Trans. McIntosh, Gary L. (1999). *One Size Doesn't Fit All: Bringing Out the Best in Any Size Church*. Revell.]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문화법인. (2019). **문화목회를 그리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PCK Culture Cooperation. (2019). *Drawing Culture Ministry*,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in Korea.]
- 오정수 역. (1992). **기독교 철학적 관점에서 본 사회학 이론**, MacLarkey, R. L. (1992). *Sociological Theory in a Christian Philosophic Perspective*, 『통합연구』 제15권.
- [Oh. J. S. (1992). *Sociological Theory in a Christian Philosophic Perspective*, Integrated Research, Vol. 15. Trans. MacLarkey, R. L. *Sociological Theory in a Christian Philosophic Perspective*, Integrated Research.]

- 민경배. (1999). **신세대를 위한 사회학 나들이**, 서울: 퇴설당.
- [Min. K. B. (1999). *Introduce to Sociology for New Generation*, Seoul: Toeseoldang.]
- 오홍명 역. (2007). **기독교의 본질**, Von Harnack, A. (1901). *The Essence of Christianity*, 서울: 한들출판사.
- [Oh. H. M. (2007). *The Essence of Christianity*, Seoul: Handuel Press. Trans. Von Harnack, A. (1901). *The Essence of Christianity*.]
- 오경환. (2006). **종교사회학**, 서울: 서광사.
- [Oh. K. H. (2006). *Religious Sociology*, Seoul: Seokwansa.]
- 이원규. (2006). **종교사회학**, 경기도: 나남출판.
- [Lee. W. K. (2006). *Religious Sociology*, Kyunggido: Nanam Press.]
- 이원규.. (2015). **종교사회학의 이해**, 경기도: 나남출판.
- [Lee. W. K. (2015). *Introducing to Religious Sociology*, Kyunggido: Nanam Press.]
- 이종한 역. (2002). **그리스도교**. Küng, H. (1995). *Christianity*. 경북: 분도출판사.
- [Lee. J. H. (2002). *Christianity*, Kyungbuk: Bundo Press, Trans. Küng, H. (1995). *Christianity*. Continuum.]
- 이형기. (2005).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서울: 한들출판사.
- [Lee. H. K. (2005). *Kingdom of God and Church*. Seoul: Handuel Press.]
- 정재영. (2012). **한국 교회의 종교사회학적 이해**, 서울: 열린출판사.
- [Jung. J. Y. (2012). *Religious Sociological Understanding of Korean Church*, Seoul: Yeolrin Press.]
- 정재현. (2003). **신학은 인간학이다**, 경북: 분도출판사.
- [Jung. J. H. (2003). *Theology is Humanitas*, Kyungbuk: Bundo Press.]
- 조성돈. (2004). **목회사회학-현대사회 속의 기독교회와 생활신앙**, 서울: 토라.
- [Jo. S. D. (2004). *Ministry Sociology-Christian Church and Life Faith in Modern Society*, Seoul: Torah.]
- 채구묵. (2015). **사회복지조사방법론(4판)**, 경기도: 양서원.
- [Chae. G. M. (2015). *Social Welfare Research Methodology(4th)*, Kyunggido: Yangseowon.]
- 정지련 역. (2007). **교회**, Küng, H. (1970). *Die Kirche*. 서울: 한들출판사.
- [Jung. J. R. (2007). *Chruch*, Seoul: Handuel Press. Trans. Küng, H. (1970). *Die Kirche*. Herder.]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20. 2. 7.). **202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

https://cemk.org/cemk_wp/wp-content/uploads/2020/02/2020_%EC%8B%A0%EB%A2%B0%EB%8F%84%EC%97%AC%EB%A1%A0%EC%A1%B0%EC%82%ACPPT.pdf (검색일 2021. 12. 9.)

[“Announcing the results of the 2020 Korean Church Social Reliability Opinion Survey”, Christian Ethics Movement in Korea. Retrieved from

https://cemk.org/cemk_wp/wp-content/uploads/2020/02/2020_%EC%8B%A0%EB%A2%B0%EB%8F%84%EC%97%AC%EB%A1%A0%EC%A1%B0%EC%82%ACPPT.pdf (2021. 12. 9.)

문화체육관광부. (2019. 1. 14.). **2018년 한국의 종교현황 보고서.**

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DataCD=0406000000&pSeq=1731 (검색일 2021. 12. 9.)

[“2018 Religion Status Report in Korea”,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Retrieved from 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DataCD=0406000000&pSeq=1731 (2021. 12. 9.)]

법보신문. (2021. 4. 5.), “종교별 사회복지법인 수”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180>. (검색일 2021. 12. 9.)

[“Number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s by religion”, The Beombo. (2021. 4. 5.) Retrieved from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180> (2021. 12. 9.)]

통계청. (2016. 12. 19).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보도자료.**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58170. (검색일 2021. 10. 10.)

[“2015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KOSTAT. (2016. 12. 19.) Retrieved from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58170 (2021. 10. 10.)]

한국기독교공보. (2021. 5. 3.), “비개신교인이 보는 교회”, 코로나19 한국교회 사회적 이미지 카드뉴스.

<http://www.pckworld.com/article.php?aid=8917875241>. (검색일 2021. 10. 10.)

[“The Church as Seen by Non-Protestants”, Korean Christian Public Information. (2021. 5. 3.) Retrieved from <http://www.pckworld.com/article.php?aid=8917875241> (2021. 10. 10.)]

포스트 코로나 사회 속에서 교회 평가 척도 개발을 위한 사회과학적 제언*

Social Science Suggestions for Developing a Church Measuring Scale In the post-COVID 19 society

배 성 훈 (연세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교회를 재는 척도의 개발을 위한 사회과학적 탐구를 그 목적으로 한다. 한국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더욱 큰 지탄을 받고 있으나 이는 코로나19로 기인한 것이 아닌 그 이전부터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었다. 사회과학 가운데 사회학적 상상력을 통해 신학과와의 접점을 찾고, 신학과 사회학이 만나는 장으로서의 교회를 집중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신앙 공동체라는 신학적 고백만이 아니라 자연적 공동체이자 사회제도이며, 자발적 결사조직이자 사회관계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회의 다른 영역들과 마찬가지로 측정될 수 있으며, 사회과학적 개념과 조작적 정의를 통해 교회를 재는 척도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전술을 바탕으로 교회를 재는 척도를 위해 세 가지 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첫째, 교회를 재는 기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사회과학과 신학을 함께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져야 한다. 셋째, 교회와 관계된 통계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주제어 : 교회, 척도, 사회과학, 사회학